

해운시장 긴급점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운산업 영향분석 (중간 업데이트)



1. 본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기타 법적 권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소유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사, 인용(재인용 포함),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본 리포트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기타 법적 권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있으므로,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사, 인용(재인용 포함), 배포,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본 리포트와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한국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무단복제, 도용, 상업적 이용 등의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 3자로부터 당사를 대상으로 한 이의 제기, 청구, 소송 기타 권리 주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모든 비용 역시 위반한 당사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

□ 바이러스 개요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병, 호흡기 또는 눈·코·입을 통해 전염되는 신종 바이러스로 2020년 1월 18일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중
- 전 세계 28개국, 확진 환자 43,100명, 사망자 1,018명 (2020.02.11. 기준)

□ 중국 정부 대응

- 중국정부,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우한시 봉쇄('20.1.23), 주요도시의 도로 및 타지역 인구 유입 통제, 춘절 연휴 연장, 공공시설(박물관, 관광지 등) 폐쇄 등 시행
- 상해, 북경, 푸젠, 충칭 등 주요 대도시, 필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에게 2월 9일까지 휴업 권고
 - 2월 11일 현재, 후베이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은 연휴를 공식 종료 하였으나,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무를 연장하는 사례 증가 (알리바바, 폭스콘 등)
 - 중국 산시(Shanxi)성, 3월 16일까지 관내 모든 건설공사 중단

그림1) 중국 내 춘절 연휴 연장 지역





경제 영향

증시급락 / 경제성장 위축

-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전세계 주식시장 혼란 발생
 - 1.20~30일 기간 중 전세계 증시 시가 총액 약 2조5,510억 달러(한화 3,026조원) 증발
 - 상하이 종합지수, 연휴 이후 첫 개장일 (2.3) 8.73% 폭락
 - 연휴 이후 첫 개장일 홍콩 증시 2.82% (1.29), 대만 증시 5.75% (1.30) 폭락
 -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 증시 2% 내외 급락, 한국 증시 3% 폭락 (1.29)
- 블룸버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 경제 피해 규모 약 1,600억 달러 추산
 - 2003년 SARS 발병 당시 피해 규모인 400억 달러의 약 4배
- 중국 경제 성장률 위축
 - 주요 경제 기관,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4%대 후반~5%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

표1) 주요 기관별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 전망치

기 관	하락폭(%p)
Morgan Stanley	1.0~1.5
Standard & Poor's (S&P)	1.2
중국 사회과학원	1.0 이상

국내 경제 영향

- 중국 경제 및 산업 위축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액 약 2억 달러 감소 전망
 - 중국 GDP 1% 감소 시 한국 GDP 0.2% 감소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2~0.3%p, 연간 최대 0.1%p 하락

표2) 주요 바이러스 발병 시기 경제성장률 둔화 추산

연 도	병 명	하락폭 (%p)
2003	SARS	0.25
2009	신종플루	0.1~0.3
2015	MERS	0.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관련 산업 영향

□ 산업활동 중단 및 재개 지연

- 춘절 연휴를 기점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산업활동 지연 장기화 효과 발생
 - 우한시가 위치한 후베이성은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의 중심지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금속 등 중공업의 비중이 높음
(중국 전체 생산량 중 조선 5%, 자동차 9%, 철강 4% 차지)
- 사람 간 전염되는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요 대도시들의 춘절 연휴 기간이 연장됨
 - 중국 전체 GDP의 약 60%를 담당하는 지역이 2월 9일까지 사실상 휴무에 돌입
 - 1월 24일부터 2주 이상 예상 외의 장기 휴무 돌입으로 산업 및 경제 활동 대폭 위축

표3) 중국 내 휴무 연장지역의 GDP 및 주요 원자재 비중

	지 역	GDP	인구	원유소비량	석탄소비량	조강생산량	휴무연장
1	Beijing	3.4%	1.6%	1.5%	0.2%	0.0%	2월 9일
2	Chongqing	2.4%	2.2%	0.0%	1.5%	0.5%	
3	Shanghai	3.8%	1.8%	4.4%	1.2%	2.1%	
4	Anhui	3.3%	4.5%	1.0%	4.1%	3.4%	
5	Fujian	3.9%	2.8%	3.7%	1.8%	1.9%	
6	Guangdong	10.8%	8.0%	9.0%	4.2%	2.8%	
7	Jiangsu	10.4%	5.8%	7.3%	7.3%	13.7%	
8	Jiangxi	2.5%	3.3%	1.3%	2.0%	2.8%	
9	Liaoning	3.0%	3.2%	12.6%	4.4%	7.5%	
10	Inner Mongolia	2.4%	1.8%	0.7%	9.5%	2.2%	
11	Shandong	9.1%	7.2%	18.2%	10.6%	8.9%	
12	Yunnan	2.0%	3.5%	0.0%	1.9%	1.8%	
13	Zhejiang	6.3%	4.0%	4.8%	3.6%	1.6%	
14	Heilongjiang	2.1%	2.7%	3.9%	3.6%	0.5%	2월 10일
15	Hubei	4.4%	4.3%	2.2%	3.0%	3.6%	2월 13일
합 계		69.7%	56.5%	70.7%	59.1%	53.2%	

자료 : 중국통계국, '18년 기준 (석탄, 원유 소비량은 '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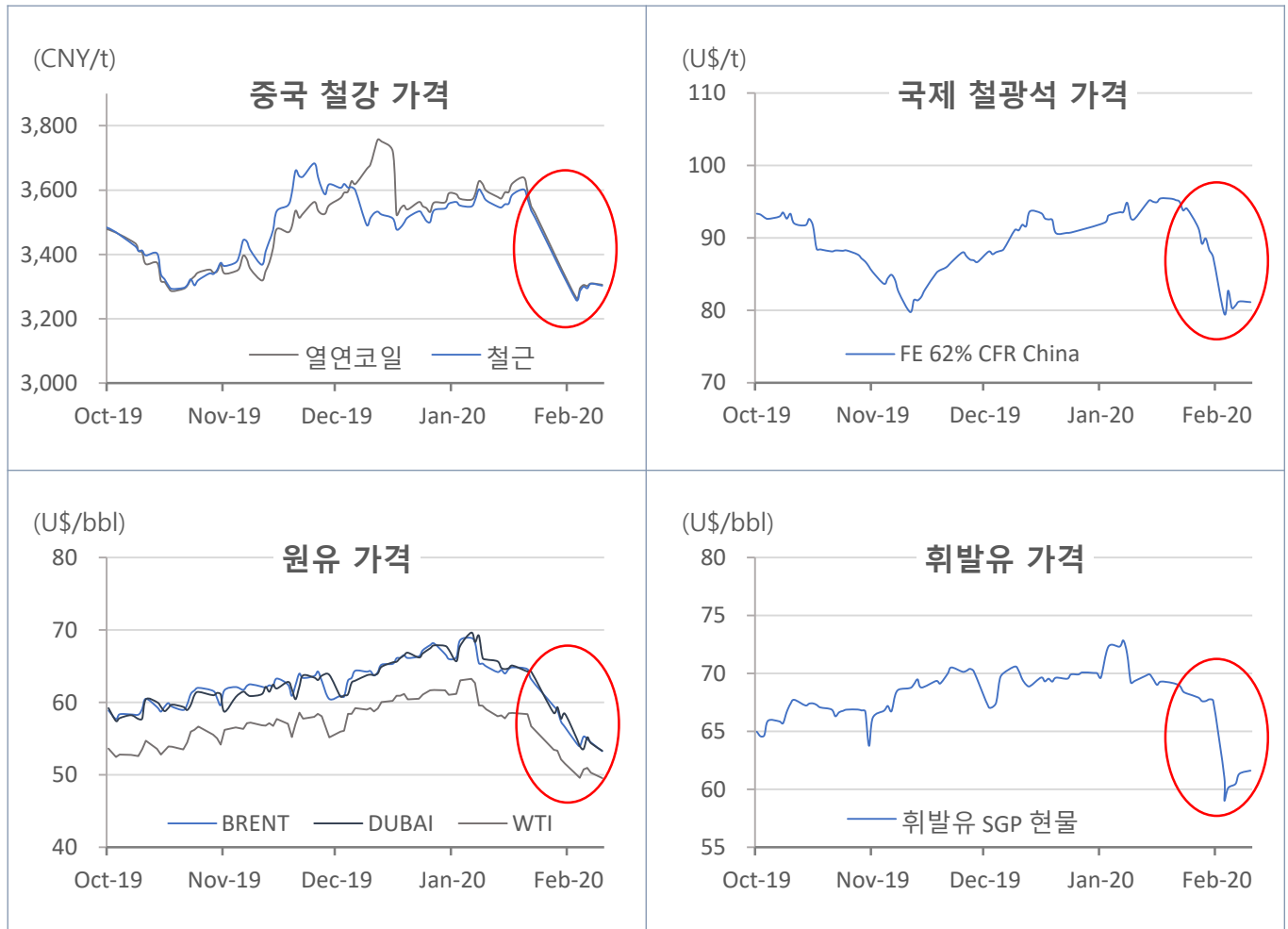


▶ 관련 산업 영향

□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및 세계 경제 침체 전망으로 철광석,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 중국 내 바이러스 확진 및 사망자 수 지속 증가하며, 중국 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
 - : 2월 3일, 중국의 춘절 연휴 공식 종료와 동시에 원자재 전 부문에 걸친 급락 발생.
 - 이후 2월 10일 현재, 대부분의 상품에서 소폭의 반등이 발생하였으나, 중국 춘절 연휴 직전인 1월 23일 대비 철근 6%, 철광석 13.5%, 두바이유 17%, 휘발유 10% 하락
 -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해운 수요 감소도 불가피

그래프)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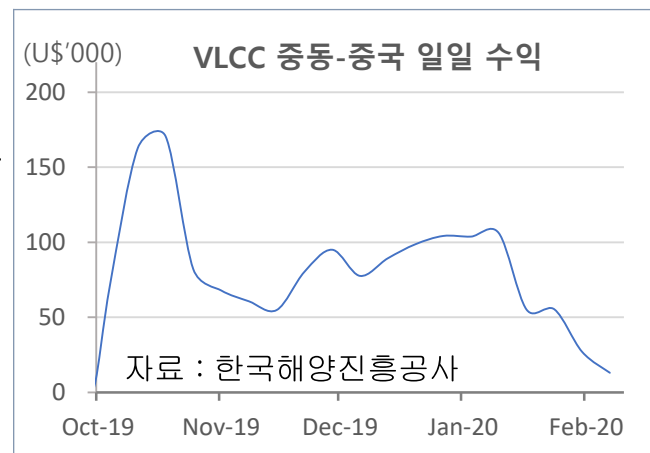
➡ 해운 시장 영향

□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될수록 피해 가중

- 건화물선, 유조선 등 주요 화물선 시장의 현재 부진은 계절적 비수기, 기상 요인, 국제 정세 변수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점이 많음
 - 통상 중국의 춘절 연휴 전후로 시장 활동성이 위축되며 해운 시장 하락 압력 가중됨
 - 금년의 경우 IMO2020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전면 시행으로 크게 증가한 연료비 부담을 운임에 온전히 전가하지 못한 점도 선박 용선 시장의 침체를 초래함
 -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해운시장에 직접적인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휴무 연장에 따른 산업활동 저하 등 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해상물동량 둔화가 가중되며 해운시장에 대한 피해도 급증할 전망
-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의 조업 지연으로 신조선 인도와 선박 수리도 지연되겠으나, 이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는 수요 위축 대비 미미할 것

□ 선종별 시장 영향

- 유조선 : 중국 내 원유 수요 침체 및 전 세계적 인력 이동 / 교통 연료 수요 감소로 유조선 수요 감소 전망
 - 전 세계 원유 수입량 중 중국의 비중은 23% 점유 (2019년 기준, Clarksons)
 - 전 세계적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자의적 혹은 강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교통 연료 수요 및 해상 운송 수요 감소 불가피 (2월 초 중국 내 항공기 결항률 20%에 근접)
 - OPEC+,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3월 정례회의를 2월 5일로 앞당겨 개최함. OPEC 측은 오는 6월 까지 60만 BpD의 추가 감산을 제안하였으나, 비OPEC 산유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 : 러시아는 이번주 중 감산 여부 결정 예정. OPEC+의 감산이 현실화 될 경우 유조선 수요 추가 위축 불가피
 - 중국향 유조선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제재에서 해제된 중국 선사들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자국향 화물을 대거 성약하며 중동-중국 항로는 전주 대비 50% 이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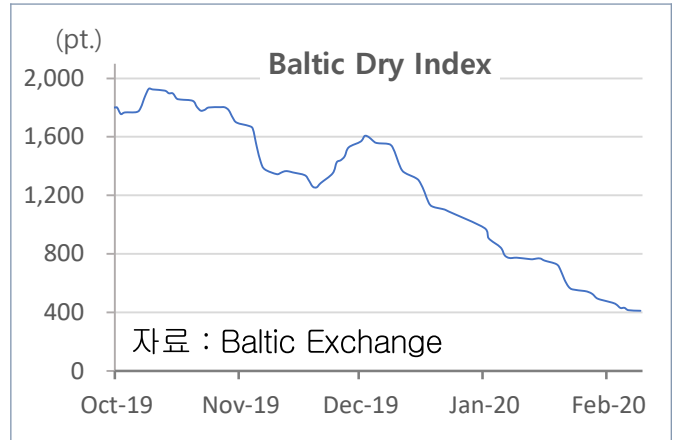




해운 시장 영향

○ 건화물선 : 사태 장기화 시 철강, 전력 수요

- 감소에 따른 중국향 철광석, 석탄 수요 침체
- 중국은 전 세계 철광석 수입량의 72%, 석탄 수입량의 20% 차지 (2019년 기준, Clarksons)
- 건화물선 시장은 12월부터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감소 및 연말연시 성약활동 둔화, 인도네시아 우기 도래에 따른 선적 장애, 평년대비 이른 중국의 춘절 연휴 등이 맞물리며 하락세 지속됨.



- 당초 1월 30일까지였던 중국의 춘절 연휴가 사실상 열흘 이상 연장되며, 건설 / 제조업 등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들의 가동 재개가 미뤄짐. 이에 따라 중국 내 철강 재고량 증가 및 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일부 제철소들은 생산설비 보수에 돌입하는 등 감산 실시.
- 석탄의 경우 중국 내 석탄광들의 조업 재개가 지연되며 공급 부족 발생.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입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며 태평양 내 파나마맥스 시황을 소폭 상승시킴. 중국향 석탄 물동량 수요는 증가한 반면, 선주들이 중국 기항을 기피하며 상대적으로 가용 선박이 부족해진 점은 중국향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을 소폭이나마 형성함.
- 그러나 중국 내 산업활동 침체로 인해 석탄 소비량도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어, 석탄 수입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컨테이너선 : 휴무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수출 활동 위축, 우한항 폐쇄

-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 항만은 1월 23일 이후 사실상 폐쇄됨 (우한항은 '19년 169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중국 최대의 강변 항만)
- 컨선 시장은 계절적으로 춘절 연휴 종료 후 물동량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임. 금년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휴가 확대되며 시장 불확실성 가중
- SCFI는 1월 23일 이후 미발표, FBX (Freightos Baltic Index) 는 1/24 1,549pt → 2/7 1,468pt로 5.2% 하락, Drewry 컨테이너 종합지수는 1/23 1,725pt → 2/6 1,744pt로 1% 상승하는 등 혼조세
- 정기선사들은 2-3월 중 미주노선 총 82회의 임시결항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21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남미, 유럽 노선도 임시결항 확대 중.
- 알파라이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금년 1분기 중국의 컨박스 처리량이 약 6백만 TEU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해운 시장 영향

- 글로벌포트트래커, 미국의 컨화물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월 12.9%, 3월 9.5% 감소한 후 4월부터 회복되겠으나 금년 총 수입량은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컨선 물량 감소 및 결항 비율도 증가할 것

□ 사태 추이 전망

○ 중국 정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경기 둔화 방어에 총력

- 2월 9일까지 휴무를 연장한 중국 대도시들이 공식적으로는 휴무에서 복귀하였으나,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까지는 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산업활동 정상화 지연
- 중국 정부는 경기 방어를 위해 2월 3일 1조 2천억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바로 다음날인 4일에는 5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함
-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합의 1단계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 1,717개 항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를 발표한 점도, 경기 방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신감 표현으로 해석됨
- 그러나 현재 사태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중국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 가능 수준으로 저지되고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어야 해결 가능
- 의학계는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 4~5월 경이나 되어야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2분기에는 산업활동 및 원자재 수요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중국 관련 계약분규 증가

- 중국 정부, 바이러스 확산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자국 업체에게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불가항력 선포를 검토하는 중국 기업들 증가함
- 그러나 불가항력의 인정은 개별 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므로, 중국 정부의 증서에 기반한 불가항력 선포는 계약 상대방에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실제로 중국석유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가 지난 주 LNG 수입 계약에 대해 선포한 불가항력을 해외 공급사인 Shell社와 Total社가 전면 거부한 바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항만 통제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현실화 될 경우 해운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향후 질병 확산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요망됨